

# “솔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 정주여건에 달렸다”

## 명현관 해남군수, 국회 찾아 기업도시 특별법 개정 요청 인구 유입 위해선 ‘초·중등 교육기관 설립’ 필요 등 설명

명현관 해남군수가 솔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에 대해 정주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5일 해남군에 따르면 명 군수는 최근 국회를 방문, 해남군 구성지구에 조성 중인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초·중등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 내에는 대학 이상 외국 교육기관 설립은 가능하나 초·중등 학교 설립은 불

가능한 상황이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산이면 구성리 일원 2천89만㎡(632만평) 부지에 오는 2025년까지 사업비 1조4천400억원을 투입해 인구 3만6천600명의 자족도시를 건설하게 된다.

국정 과제인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 단지·발전단지 조성을 비롯해 탄소중립 클러스터,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 각종 국책사업들은 물론 산이정원과 글로벌 데이터센터, 탄소중립 에듀센터,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등 투자유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활성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회원산단 해상풍력 배후단지 개발과 함께 기업 고용 인력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군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주거지역과 복합문화공간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십수년간 묵혀있던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최근 잇따라 투자유치에 성공함에 따라 활성화의 중대한 계기를 맞고 있다”며 “초·중등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해지면 젊은 층을 비롯해 유입 인구의 안정적인 정주가 가능해지는만큼 법 개정에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명 군수는 강대식(국민의 힘 최고위원),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



명현관 해남군수는 최근 국회를 방문, 솔라시도 기업도시 정주 여건 개선과 초·중등 교육기관 설립 등을 위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사진은 서상석 국회의원 방문 모습. <해남군 제공>

삼석(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장), 이철규(국민의 힘 사무총장) 국회의원을 차례로 방문해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지역현안에 대한국비 지원등도 건의했다. 또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들어서게 되는 녹색융합(탄소중립) 클러스터 조

성의 국비 지원과 함께 지역 내 주요 현안사업인 교통망 개선 사업에 대한 건의도 했다.

군은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개설과 해남화원-신안 압해 간 국도77호선 연결도로 개통에 따라 교통 수요가 늘고 있는 팽결마을 인근의 송지-북평 도로 개선과 화원영호-월호간 4차선 확장 사업 등에 대한 국도부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민선 8기 1년을 맞아 해남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본 궤도에 오른 만큼 지역 국회의원,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비확보 등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발로 뛰는 세일즈 행정으로 현안사업 해결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필용기자



나주시는 지난 23일 강영구 부시장 주재로 집중호우 대비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부서별 중점 대처상황을 점검·공유했다. <나주시 제공>

## 나주시, 집중호우 대비 비상체제 가동

나주시가 장마철 예보에 따라 지난 주말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나주시는 “지난 23일 강영구 부시장 주재로 집중호우 대비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부서별 중점 대처상황을 점검·공유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기상특보 발효 등에 따른 24시간 비상근무, 풍수해관리시스템 재해 위험알림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강 부시장은 인명 피해 우려, 재해 취약지역, 야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전 예방과 배수펌프장, 하천배수문 정상 가동 여부 등 철저한 사전 점검을 당부했다.

시는 배수펌프장 25개소, 하천배수문 170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95개소, 상수도 시설 57개소, 하수처리시설 82개소, 하천 둔치 주차장 4개소, 대형 개발행위 공사현장 10곳 등의 주요 시설물 사전 점검을 마쳤다.

강봉에 취약한 가로수 응급 복구를

위한 현장대응팀도 1개소 8명으로 긴급 대기한다.

응급 복구가 필요한 시설물은 전국 건설기계 나주시협의회, 지역 군부대, 자율방재단 등 6개 기관과 협업을 통해 복구 인력과 장비를 투입한다.

강영구 부시장은 “올해 장마는 평년 대비 많은 강우가 예상됨에 따라 사전 현장 점검을 통한 재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기상특보 등 유사 시 현장에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정위치 근무를 비롯한 비상대응체제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주=정종환기자

## “여인송 숲 보호” 신안군, 공공공지 신설

### 난개발 방지...주민·관광객에 여가공간 제공

신안군은 “모래사장과 해안을 따라 펼쳐진 송림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하는 자은면 분계해변 ‘여인송 숲’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를 신설(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공공공지는 시·군내의 주요 시설물이나 환경 보호, 경관 유지, 재해 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 시설중 하나다.



신안군에 위치한 여인송 숲의 풍경. <신안=양훈기자>

군은 분계해수욕장 주변의 가속화되는 개발 압력 증가로 각종 건축물, 공작물 설치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 가능지역의 완충구역을 확보해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공공복리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또 공공공지를 신설(결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현지 점검, 마을주민·이해관계인들과 면담 등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해 사유 재산권 침해 최소화하고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공공공지 최종(안)을 확정했다.

‘여인송 숲’은 지난 2010년 제1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아름다운 어울림상’을 수상했다. 자은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명소이자, 조선시대부터 방풍림으로 조성돼 온 수백 년의 노송숲이다. /신안=양훈기자

## 진도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설명회

진도군은 “최근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수립 주민대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설명하고 주민 참여를 위해 읍면장을 포함한 공무원과 이장단장, 주민자치회장 등 주민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를 통해 내년 투자사업으로 계획 중인 ‘진도 소행성 인구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한 사업을 안내하고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사업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 추진으로 마을 기반 소득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진도=백세관기자

진도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인 군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진도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10년간 인구 감소지역과 관심 지역을 대상으로 해마다 1조원씩 총 10조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군은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진도=백세관기자

## 강진, 쌀귀리 융복합사업단 운영위 출범

### 2025년까지 30억 들여 특화산업 클러스터 구축

강진군이 쌀귀리 융복합사업단 운영위원회를 출범하고 특화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25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강진군청 소회의실에서 ‘강진 쌀귀리 융복합사업단 운영위원회’를 출범하고 창립총회를 진행했다.

쌀귀리 융복합사업단 운영위원회는 강진 쌀귀리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서순철 부군수(사업단장)와 참여 주체, 전문가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창립총회는 사업 추진계획 보고, 종합토의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강진 쌀귀리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중 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대한민국 최대 쌀귀리 주산지인 강진군에서 생산되는 쌀귀리는 단백질, 아미노산 함량이 풍부해 본연의 풍미가 진하며 특히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씹는 맛이 우수한 품질 특성을 갖고 있다.

강진 쌀귀리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은 농산물 1·2·3차 산업화 기반이 집적된 곳을 지주로 지정해 생산·가공·유통·체험 등이 융복합된 산업화 촉진과 지역경제의 다각화, 고도화를 위한 특화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22

~2025년 4년 간 총사업비 30억원(국비 15억원·지방비 10억5천만원·자부담 4억5천만원)이 투입된다.

군은 쌀귀리 종합가공시설 구축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쌀귀리 가공 상품 개발 및 보급,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분야별 사업 추진을 통해 강진군 쌀귀리에 대한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서순철 부군수는 “쌀귀리 종합가공 시설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군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쌀귀리를 맞보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기자

## “지역에 활기를”...완도군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본격 지원

### 7개팀 오는 11월까지 활동...이후 성과 공유도

완도군은 25일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청년 공동체 활동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 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군에서는 7개팀(37명)이 선정돼 오는 11월까지 활동한다.

선정된 7개 청년 공동체는 ▲완도군만의 이모티콘 개발, 그림톡, 열쇠고리 등 소품 제작 홍보 ▲우드버닝·업사이

클링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색채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국악 양성 프로그램 운영·홍보 ▲폐현수막, 폐의류 재활용 장바구니, 음료수 캐리어 등 제작 ▲전북 활용 음식 연구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안내와 각 청년 공동체의 활동 방향 등을 공유했으며 간담회를 시작으로 군

은 지속적으로 청년 공동체 간의 소통·교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활동이 마무리되면 군 자체로 그간 활동에 대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청년 공동체 대표들은 “청년들이 교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청년들의 활동이 기대된다”며 “청년 문화가 확산돼 지역이 청년들의 활기로 가득 차길 바란다”고 전했다. /완도=윤보현기자



최근 함평자연생태공원 매월교부터 신광면 연천마을 뜬봉까지 약 2km구간의 '대동제 힐링수변길' 조성이 완료됐다. <함평군 제공>

## 함평, 대동제 힐링수변길 조성 완료

### 자연생태공원 매월교-신광면 연천마을 뜬봉 2km 구간

함평군은 “최근 신광면에 위치한 ‘대동제 힐링수변길’ 조성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동제 힐링수변길은 함평자연생태공원 매월교부터 신광면 연천마을 뜬봉까지 약 2km에 달하는 구간으로 군은 두

층나무, 버드나무 등 기존의 산림 자원과 단절됐던 임도를 활용, 지난해 10월부터 수변길 조성 공사를 추진해왔다.

힐링수변길은 함평자연생태공원과 신광면 연천마을을 연결하는 수변 데크로드, 수변길, 힐링길 3개 구간으로

조성됐다. 대나무, 두층나무, 이팝나무, 버드나무 등 각각의 수목을 테마로 조성돼 있어 계절마다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대동제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대로 2곳에 설치돼 있다.

군은 힐링수변길이 함평자연생태공원, 별별캠핑장 등 주요 관광지외도 연결돼 있어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평=김연수기자